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 혜 민

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년

이 혜 민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진로소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교 재학생으로,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 대학교 재학생은 1,520,850명이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대학 소재 지역, 전공계열, 학년을 고려한 유층화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에 각 70명씩 총 560명을 표집 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원 도구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1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총 560부의 배부된 설문지 중에서 482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6.0%), 최종적으로 42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 자료율 75.1%). 자료 분석은 Window SPSS 2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여 적합도와 변인간의 경로계수분석을 통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소명(β=.603)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의 매개효과(B=.061)가 나타났으며,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도 진로소명의 매개효과(B=.025)가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통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래의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 현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에 근거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소명이 대학생의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에 개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진로와 일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다 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속변인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 이유를 유형화하여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을 탐색하여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관련 변인에 대한 진로소명의 영향력을 구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소명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대학생

학번: 2013-23220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가설 ·····4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진로결정 ·····8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14

3.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 24

III. 연구의 방법 ·····35

1. 연구 모형 ·····35

2. 연구 대상 ·····36

3. 조사 도구 ·····40

4. 자료 수집 ·····46

5. 자료 분석 ·····47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53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3
2.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55
3. 측정모형 분석 ·····61
4. 구조모형 분석 ·····66
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72

V. 요약, 결론 및 제언 ·····77
1. 요약 ·····77
2. 결론 ·····79
3. 제언 ·····80

참고문헌 ·····83
부록 ·····94
Abstract ·····101

표 목 차

<표 Ⅱ-1> Tideman & O'Hara의 의사결정 단계별 특징 ·····8
<표 Ⅱ-2>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단계별 특징 ·····10
<표 Ⅱ-3> 진로결정 측정도구와 하위요인 ·····13
<표 II-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종합 ·····17
<표 II-5> 진로소명에 대한 정의 ·····21
<표 II-6> 진로소명 측정도구 ·····24
<표 II-7>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 종합 ·····34
<표 III-1> 지역별 4년제 일반 대학의 학교 수와 학생 수 현황 ·····36
<표 III-2> 4년제 대학 전공계열 별 학생 수 ·····37
<표 III-3> 4년제 대학 학년 별 학생 수 ·····37
<표 III-4> 4년제 대학 성별 별 학생 수 ·····38
<표 III-5> 조사도구 구성 ·····41
<표 III-6> 진로결정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2
<표 III-7> 진로소명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4
<표 III-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5
<표 III-9>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6
<표 III-10> 연구 가설별 분석 방법 ·····47
<표 III-11> 적합도 지수 해석 기준 ·····50

<표 IV-1> 응답자와 모집단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성별 별 학생 수 비교 ·····53
<표 IV-2> 응답자와 모집단의 전공계열 별 학생 수 비교 ·····54
<표 IV-3> 응답자와 모집단의 학년 별 학생 수 비교 ·····54
<표 IV-4>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55
<표 IV-5> 관찰변인의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57
<표 IV-6>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59
<표 IV-7>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 ·····60
<표 IV-8>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62
<표 IV-9>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63
<표 IV-10>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64
<표 IV-11>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다중상관자승 ·····65
<표 IV-12> 가설적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67
<표 IV-13>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68
<표 IV-14> 가설적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 ·····68
<표 IV-15> 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결과 ·····69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가설적 연구 모형 ····· 35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비율표집 과정 ····· 40

[그림 Ⅲ-3] 팬텀변인을 포함한 가설적 구조모형 ····· 51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 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개개인이 정체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충분히 개발시켜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사회구성원으로써 직업세계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진로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업으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진로의 획득 및 입직을 위한 준비 행동을 전개한다.'로 설정되었다(최동선, 2006).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 쌓기에 매몰되기보다는 대학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일자리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분야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를 진학할 때,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와 자신의 이해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김봉한, 김병석, 정철영, 2000). 반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rgens,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에 대한 이해와 상담이 필요하다. 진로를 이분법적으로 진로결정 및 미결정으로 이해하여 진로상담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기보다,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진로결정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진로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배종훈, 2001). 개개인에 대한 차별화

된 진로개입을 위해 학생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자가 미결정자보다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이기학, 2003; 장선철, 2003; 최은영, 2010).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 중에는 진로결정의 내용과 과정 측정에서 미숙한 집단의 존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홍월, 2007; 최윤정, 구본정, 2010). 진로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욱, 류진혜, 2008)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뿐 아니라 이미 진로결정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진로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생에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기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현장에서는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목적인 '소명'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Duffy, Allan, Dik, 2011; Praskova, Creed, & Hood, 2015) 진로소명이 개인의 진로 방향성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Dik & Duffy, 2009). 진로소명은 개인의 자기 개념에 직업 역할을 구현하고 직업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Duff & Sedlacek, 2010). 진로소명은 자기 명확성과도 관련이 있으며(Duffy & Sedlacek, 2007),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Super, 1990).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시 적성 탐색뿐 아니라, 소명과 같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 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진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Solber,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상기시켜 자신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일 수 있다(Hall & Chandler,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는 데 남학생 42%와 여학생 50%의 설명력을 가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이은경, 2001).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미래 일에 대한 의미와 목표에 영향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동기적 역할을 하여 진로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통해 전공만족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는 실증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강영숙, 이은정, 2006; 신혜원, 2013; 이형룡, 박슬기, 2010). 하지만 이 연구들은 특정 학과인 사회복지학과, 가정교육과, 호텔 관련학과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재학기간 중 직면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과 진로소명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예측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고 진로결정의 과정을 파악한다면,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연

구의 목적이 있을 때 적합한 구조방정식 모형(배병렬, 2009)을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 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및 진로소명간의 구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 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결정

진로결정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선택에 관련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미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고향자, 1993).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은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 이유(자기명료성,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Jones(1989)가 개발한

CDP(Career Decision Profile)를 고홍월(2007)이 보완 및 수정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 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간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소속된 전공이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여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하혜숙, 2000).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을 3개의 하위영역으로 전공교과만족, 사회적인식만족, 일반만족으로 구분하였다. 학과만족의 측정도구로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수정 및 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진로소명

진로소명(Career Calling)은 개인의 진로와 미래의 일에 대한 목표를 개인과 타-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소명은 개인적 의미, 타-지향적의미, 적극적참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Praskova, Creed와 Hood(2015)가 개발한 CCSEA(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를 Kim, Praskova와 Lee(2016)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대학생이 응답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가. 진로결정이론

1) Tiedman과 O'Hara의 의사결정모형

Tied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의 과정을 개인의 직업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이 발달 과정에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직업과 진로에 관한 정체감인 직업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 Tied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문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진로선택 시 겪게 되는 과정으로 일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발달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를 크게 예상기와 이행기로 분류하였고, 7단계를 상세히 분류하였다. 예상기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의 단계로 분류하였고, 실행기는 적응(순응), 개혁, 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II-1>과 같다.

<표 II-1> Tideman & O'Hara의 의사결정 단계별 특징

발달단계		특징
예상기	탐색단계	현재의 상황에서 불만족함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 내려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됨
	구체화단계	가치관과 목표, 가능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기 시작
	선택단계	여러 대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로서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짐

<표 II-1> Tideman & O'Hara의 의사결정 단계별 특징<계속>

발달단계		특징
	명료화단계	자신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가짐
이행기	적응단계	새로운 조직 혹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의 단계
	개혁단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여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치관 및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고 함
	통합단계	의사결정에서 분화와 통합과정 최종 단계로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하고 균형 있게 조절하고 통합하게 됨

이 이론의 제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경험적 자료의 부족이다(고향자, 1993). 따라서 Harren(1979)는 진로의사결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도구를 개발하고 Tiedmann과 O'Hara의 이론을 재개념화하여 포괄적인 진로의사결정모형으로 발전시켰다.

2) Harren의 진로의사결정모형

Tiedmann과 O'Hara의 이론은 진로의사결정의 문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일생에서 여러 차례 반복과정으로 보았다면, Harren(1979)는 진로의사결정을 대학생의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모형을 발달 시켰다. 따라서 이 모형은 Tiedmann과 O'Hara의 모형을 확장시켰으며, 인식, 계획, 확신, 이행의 4가지 단계로 의사결정과정을 구분하였다.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Ⅱ-2>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단계별 특징

발달단계		특징
인식단계		현재 진로계획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불행을 느끼는 상태로 탐색할 필요를 인식함
계획단계		확장조사와 구체화의 과정을 명확함 자신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구체적인 대안을 결정함
확신단계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 것에 대해 친한 친구, 부모 등과 함께 등과 함께 의논해 보고 그들의 반응을 얻음 피드백은 가치 있고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행단계	동조	개인은 사회적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를 경험하고, 자신의 욕구-가치-목표를 억누르거나 금지함
	자율	외부환경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주장되고 과대포장 되기도 함
	상호의존	다른 사람과의 상보적 및 상호적 작용으로 변함

나.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결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Wanberg & Muchinsky, 1992).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분법적 관점에서의 진로미결정이다. Savickas(1995)는 진로결정의

개념은 이분법 관점 뿐 아니라, 단일차원의 연속개념과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로미결정에 대한 역사를 정리 하였다.

첫째, 진로결정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이다. 이는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주목받았던 관점으로 Parson(1967)가 내담자들을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관점에서는 진로결정집단과 미결정집단의 학문적, 성격적, 그리고 전기적 차이를 알아내고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미결정집단의 특성이 미성취, 미성숙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담가들이 미결정의 원인을 알고 이를 치료하는데 집중하였다. 둘째, 진로결정을 결정과 연속된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진로결정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한계를 인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 하는 것을 중단하고 연속선상의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 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진로결정이 하나의 집단이 아닌 서로 다른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Slaney, 1988). 이 관점에서는 단일차원의 연속 개념인 진로결정을 측정하던 도구들을 다차원의 하위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Savicas & Jarjoura, 1991; Vondracek ,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au, 1990). 더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2세대 도구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3). 즉, 자신의 진로에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높은 점수는 보다 확고한 결정을 의미한다(유채은, 조규판, 2012).

진로결정을 Jone & Chenery(1980)는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연장선상을 넘어서 개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편안성을 도입하여 진로결정프로파일(CDP)을 개발하였다. Jone & Chenery(1980)는 진로결정을 이해하기위해서는 결정성 차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편안성과 이유라는 하위영역을 포함시킴으로,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집단으로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 진로결정의 측정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도구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집중적인 관심을 받거나 타당성을 검증받은 도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진로결정을 측정하는 일은 Holland와 Holland(1977)의 VDMD(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y Scale)등을 시작으로 Osipow, Carnery, Winder, Yanico와 Koschir(1976)의 CDS(Career Decision Scale), VDMD를 Holland 등이 개정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o),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도 사용되는 QAQ(Occupational Alternatives Questions), 그 외에도 Jones와 Chenery(1980)가 개발, 후에 개정한 CDP(Career Decision Profile) 등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진로결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Osipow 등(1979)에 의해 개발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이다. 진로결정검사는 고향자가 1993년에 한글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CDS는 내담자의 면접을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미결정에 대해서 16개의 서로 구별되는 선행요인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전체적인 미결정 점수를 산출 할 뿐 아니라 요인 분석을 통해 미결정에 관한 네 가지의 원인을 진단하도록 되어있

다. 이 척도의 미결정의 선행조건을 요인분석하면 (1)구조와 확신성의 부족(a lack of structure and confidence), (2)접근-접근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s), (3)선호하는 직업선택을 방해하는 외적 장애물(perceived external barriers to preferred choice), (4)개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이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그 외에 다른 측정도구와 그 하위요인들을 <표 Ⅱ-1>에 정리하였다.

<표 Ⅱ-3> 진로결정 측정도구와 하위요인

연도	연구자	사용도구	하위요인
1976	Osipow, Carney, Barak	CDS(Career Decision Scale)	1) 구조와 확신의 결어 2) 인지적 외부적 장애 3) 접근-접근 갈등 4) 개인적인 갈등
1980	Jones, Chenery	VDS(Vocational Decision Scale)	1) 진로를 결정한-편안한 2) 진로를 결정한-불편한 3)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편안한 4)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불편한
1990	Chartrand, Robbins, Morril & Boggs	CFI(Career Factor Inventory)	1) 진로정보 필요요인 2) 자기이해 필요요인 3) 선택불안요인 4) 일반적인 미결정요인
1996	Gati, Kausz, & Osipow	CDDQ(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1) 동기부족 2) 우유부단함 3) 진로결정절차 4)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5) 직업의 보수나 사회적 지위 6) 정보 획득 방법 7) 신뢰롭지 못한 정보 8) 내적갈등 9) 외적갈등
2000, 2003	탁진국과 이기학	KCII(Korea Career Indecision Inventory)	1) 외적장애 2) 우유부단 3) 직업정보 부족 4) 자기명확성 부족 5) 필요성인식 부족

또 다른 진로결정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진로결정프로파일(CDP) 척도가 있으며, Jones와 Chenery(1980)가 개발한 VDS(Vocational Decision Scale)를 바탕으로, Jones(1989)가 CDP(Career Decision Profile)로 발전시켰다. 하위변인으로는 결정성, 편안성과 진로미결정 이유가 있다.

진로미결정의 이유로는 자기명료화,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의 하위요인으로 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미결정의 이유의 구체적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남순 & 배종훈, 2000).

1. 자기명료화: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직업에 자신이 적합한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개인의 지각.

2.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직업과 훈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3. 결단성: 불필요한 지연, 어려움 또는 다음 사람에 의존 없이도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믿는가?

4. 진로선택의 중요성: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유 영역은 응답점수를 역코딩하여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기명료화'에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은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등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진로 결정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Betz &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행동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로써, 자기효능감이 여성의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성별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직업(traditional occupations)과 관련한 교육적 요구와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여성은 치과 위생사, 사회복지사, 가정 경제학자, 총무와 같은 여성의 전통적인 일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고, 남성은 남성에게 우세한 직업인 회계사 , 수학자, 엔지니어 및 제도사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전통적과 비전통적인 직업(nontraditional occupations)에 동등한 자기효능감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전통적인 직업에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전통적인 직업에는 낮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차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정 중에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녀의 진로선택에 차이를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김태석(2012)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며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성식과 정철영(2007)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 및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이에 따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도구로서 Taylor와 Betz(1983)이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가 있다. CDMSES는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 및 행동 결과의 성공여부의 기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Crite(1971)의 진로성숙 구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도구에 문항을 이루는 하위요인에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Talor와 Betz(198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8~.97로 나타났다.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Betz, Klien, & Taylor, 1996)은 50문항이었던 Taylor와 Betz(1983)의 CDMSES를 각 하위 요인별로 5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25문항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 도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련 연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하위요인은 CDMSES와 동일하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73~.83이었다.

이 외에도 Fouad, Smith와 Enchos(199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Taylor와 Betz(1983)의 CDMSES에서 수정 및 추출하여 12문항으로 검사도구를 만들었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CDMSES-SF를 번안하여 국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68~.7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은경(2001)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DMSES를 한국어로 번안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를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상에 맞게 문항을 수정 혹은 대치하여 타당화 하였다. 따라서 하위요인 중 기존 CDMSES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평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제외하여 4가지 하위요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는 .64~.79로 나타났다.

<표 II-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종합

구분	Taylor & Betz(1983)	Betz, Klein, & Taylor(1996)	Fouad, Smith, & Enchos (1997)	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은경(2001)
도구명	CDMSES	CDMSES-SF	The Middle School Self-Efficacy Scale	한국판 대학생용 CDMSES-SF	한국판 CDMSES-SF
대상	대학생	대학생	중학생	대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하위 요인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	-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
문항 수	50문항	25문항	12문항	25문항	25문항
응답양식	10점 Likert 척도	10점 Likert 척도	5점 Likert 척도	5점 Likert 척도	5점 Likert 척도
신뢰도	.88~.97	.73~.83	.79	.68~.79	.64~.79

나. 전공만족

1) 전공만족의 개념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계획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의미한다(하혜숙, 2000).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에 지각에 따른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공만족은 학교생활만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교생활만족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또는 태도이다(김미경, 2001). 전공만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같은 대체안들에 있어서의 인지적인 평가의 관점(Cranny, Smith, & Stone, 1992)에서 개념화 할 수 있다.

전공만족의 연구는 주로 교육 행정적 측면에서 주로 대학에서 학과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다른 학과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전공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하혜숙, 1999)

2) 전공만족의 측정

전공만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로는 Braskamp, Wise, & Henstler(1979)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와 Illinois 주립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가 있다. 국내에서는 이 도구

를 나동진과 송재홍(1985)이 처음 번안하였고,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5개 하위요인과 총 27문항으로 전공만족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국내에서는 하혜숙(1999)이 외국의 연구에서는 없었던 사회적인식에 대한 만족이 전공만족에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파악하여, 이를 교과만족, 학교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과 포함하여 인식만족으로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전공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Nauta(2007)이 개발한 AMSS(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이 있다. AMSS는 총 6문항으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다. 진로소명

1) 진로소명의 개념

진로소명의 개념은 진로(career)와 소명(Calling)을 결합된 단어로써, 먼저 소명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명은 전통적으로 사전적 의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기독교의 종교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되어, 직업심리학 및 조직분야 연구에서 자신의 일을 개인적·사회적으로 깊은 의미와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Burnderson & Thompson, 2009; Elangovan, Pinder, & McLean, 2010). 이때부터 소명을 진로라는 개념에 확장시켜 학자들이 사용하였다.

소명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나, 단일차원(Unidimentional)과 다차원적(Multidimensional)로 본 학자로 구분 된다. 단일차원로 본 Dobrow(2013)은 소명을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는 열정을 의미한다고 개념화 하였고, 다른 학자들은 소명을 다차원적인(Elangovan, et al., 2010; Dik & Duffy, 2009; Praskova, Creed, & Hood, 2015)것으로 보았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의미하며,

초월적 부름, 목적과 의미, 타인 지향적 가치를 갖는 것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Praskova외(2015)는 진로소명을 자신의 미래 진로 및 일에 있어서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소명을 긍정심리학과 긍정조직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전반적 인생 뿐 아니라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소명은 정체성, 적응, 자신감, 탄력성과 연결하여 직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자원으로써, 자신의 가치로부터 내적으로 도출되는 자기 지향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Hall & Chandler, 2005).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 영향력은 직무몰입, 직무만족(Duffy, Dik & Steger 2011; Duffy, et al., 2012)등의 여러 진로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소명은 진로결정(Diffy & Sedlack, 2007;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진로 효능감(Duffy, Allan, & Dik, 2011; Dobrow & Tosti-Kharas, 2011; Hirschi, 2011), 진로적응(Douglass & Duffy, 2015; Praskova, et al., 2015), 학업만족(Duffy, Allan, & Bott, 2012; Duffy, Allan, & Dik, 201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은 기독교적 해석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로소명은 연령, 고용수준, 종교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나타났다(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표 II-5> 진로소명에 대한 정의

구분	연구자	정의
단일차원	Dobrow(2013)	소명을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는 열정을 의미
다차원	Dik & Duffy(2009)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동기화시켜주는 것
	Elangovan, Pinder, & McLean(2010)	개인이 하기를 원하고, 해야 하고, 실제 행하는 일로 친사회적인 추구 행동
	Hall & Chadler(2005)	자신의 가치로부터 내적으로 도출되는 자기 지향적인 것
	Praskova외(2015)	자신의 미래 진로 및 일에 있어서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의미를 의미
	양난미 & 이은경(2012)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목적으로, 특정 종교나 문화를 넘어선 보편적 개념

2) 진로소명의 측정

진로소명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Dik, Eldreidge와 Steger(2008)가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 Questnnaire(CVQ)로 소명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VQ는 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

으며, 소명의 상태를 크게 존재와 추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요인은 초월적 부름,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으로 구분된다. 심예린과 유성경(2012)은 이 도구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CVQ의 6요인과는 달리 3개 요인이 나타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 탐색과 추구요인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VQ의 개발자 Dik은 추구 문항을 모두 제거하고 존재 문항들만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한국판 CVQ는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4문항씩, 12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이 외에 CVQ-K(한국판 진로소명)의 제한점으로, 하위차원 중 초월적 부름에 대한 문항은 종교 유무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이 척도가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척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CVQ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와 같이 문항 번안을 '일'이라고 포함 되어 있어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을 경우 응답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심예린 & 유성경, 2012). 따라서 국외 진로소명의 관련연구는 24문항의 CVQ 보다 진로소명의 존재와 추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Dik, Eldridge, Steger과 Duffy(2012)의 BCS(Brief Calling Scale)중에서 진로소명의 존재를 측정하는 2문항이 다수 연구에 사용되어왔다(Bott & Duffy, 2015; Douglass & Duffy, 2015; Duffy, et al., 2012; Duffy & Sedlacek, 2010; Duffy, Allan, & Dik, 2011; Hirschi, 2011; Duffy, Douglass, Autin, & Allan, 2014; Hirschi & Hermann, 2013; Duffy, Douglass, Autin, England, & Dik, 2016;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Dorow 외(2011)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소명을 측정하도록 개발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측정한다. 측정도구를 음악, 예술, 경영학과 전공 학생들과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나누어 타당화 하였다. 본 측정도구가

진로관련 변인들과 연구하여 진로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소명척도는 하위요인 없이 여러 문항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소명의식이 가진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개발된 도구로는 Praskova 외(2015)가 개발한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가 있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의 목표를 개인적 의미와 타인을 돕는 것으로 나누어 청년들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발달적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 도구들은 진로소명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위요인을 개인적 의미, 타-지향적의미, 적극적 참여로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Kim, Praskova와 Lee(2016)는 Praskova 외(2015)가 개발한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의 도구를 번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Kim 외(2016)는 Praskova 외(2015)와 소명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며, 7번 문항인 '나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인가 하게 하는 이유를 줄 진로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를 개인적 의미로 본 미국인 대상과는 달리 한국인은 적극적 참여로 문항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양 전통은 개인적 목표설정을 촉진하는 하위요인 중 개인적 의미를 반영하는 항목의 구성요소인 '진로 목표의 확인'에 초점을 맞추며,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높은 업무 참여와 성과 추구를 통해 공적 자아 및 집단표현을 강조하는 문화에 이끌려 '목표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교하였다.

<표 II-6> 진로소명 측정도구

구분	진로소명 측정도구			
도구명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Brief Calling Scale(BCS)	Calling scale Items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조사대상	대학생, 근로자	대학생, 근로자	대학생, 근로자	Emerging Adult
개발자 (연도)	Dik, Eldridge, Steger, & Duffy(2012)	Dik, Eldridge, Steger, & Duffy(2012)	Dobrow & Tosti-Kharas(2011)	Praskova, Creed, & Hood(2015)
하위 영역	초월적부름 존재/추구 목적,의미 존재/추구 친사회적 지향 존재/추구	소명 존재 소명 추구	-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인 의미 적극적인참여
문항 수	24문항	4문항	12문항	15문항
응답 범위	4점 Likert 척도	5점 Likert 척도	7점 Likert 척도	6점 Likert 척도
신뢰도 (하위영역)	(.85~.92)	.81	.91	.89(.80~.85)

3.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

가. 진로결정 관련 변인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내기 위해 힘썼다. Gordon(1981)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흥미, 가치, 능력, 요구. 자아개념, 성숙, 동기, 에너지수준, 의존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부모의 소득, 과외활동, 의사결정양식 등의 약 30여개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변인들을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Newman, Gray & Fugua, 1999).

심리적 변인에는 불안(Fugua & Hartman, 1983), 정체감(Fugua & Hartman, 1983; Holland & Holland, 1977), 자존감(Taylor & Betz, 1983), 통제소제(locus of control), 5요인 성격(Lounsbury, Tatum, Chambers, Owens, & Gibson, 1999)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불안(anxiety)은 진로미결정 관련요인 중에 가장 많이 연구 되었으며 진로미결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 & Strange, 1981; Fuqua, Seaworth, & Newman, 1987; Hawkins, Bradely, & White, 1977; Kimes & Troth, 1974).

사회적 변인에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 계열, 사회계층 등이 대표적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Daniels & Buck, 1983; Harren, 1979).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의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4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aniel & Buck, 1984). 허자영(1996)은 2학년과 3학년이 진로미결정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함을 보임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의 학년 간 차이를 입증하였다. 또한 계열과 관련하여서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의 학생들의 진로는 결정하였지만 확신이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CDP를 활용한 진로결정수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혜성과 홍혜경(1998)은 CDP번안과 함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상태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정결정형, 다재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군집유형이 나타났다. 장선철(2003)은 CDP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진로결정상태를 군집 분석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고홍월(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숙한 결정자, 미성숙한 결정자로 진로결정자를 분류하여, 문제 있는 진로결정자를 확인하였다.

진로결정의 선행연구는 연구초기에는 진로미결정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점차 진로결정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진로결정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이기학, 2003; 최은영, 2010).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성만을 강조할 때 내담자의 다양한 필요에 제한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과 진로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이현주, 2000).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자신의 진로관련 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자신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 Taylor와 Pompa(199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만이 진로미결정을 중요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Lent, Brown과 Hackett(1994)은 자신감이 자신에 대한 명확성 높이고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Xu와 Tracey (2014)는 모호함에 대한 관용(Ambiguity Tolerance)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 중에서 역기능적 신념(Dysfunctions Belief)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동기부족의 관계가 다른 하위변인인 신뢰롭지 못한 정보, 정보부족, 우유부단함 보다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동기부여 부족의 문제보다 진로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 정보 부족 및 정보적 문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높이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이 높게 나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 진로결정과 전공만족의 관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 관련 변인, 가정 관련 변인, 학교 관련 변인 그리고 직업관련 변인의 연구가 되어왔다(김경식 & 이현철, 2007). 학과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김계현 & 하혜숙, 2000)하는 것을 기초해보면 전공만족은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환경적 요인인 학교는 대학생활 및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전공만족은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가 자신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하혜숙, 1999).

전공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불만족을 수행에 대한 실패로 해석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진로결정을 초래하게 된다(Nauta, 2007). 또한 대학생들 가운데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전공 또는

학과가 불일치로 인한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전공에 대한 만족은 진로결정 및 선택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전공만족과 진로결정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임은미, 박승미과 엄영숙(2009)는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대학 및 전공만족이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관계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전공만족의 과정과 진로결정의 과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ak & Lee(2003)은 진로미결정의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공만족을 설정하여, 진로미결정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공만족과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 및 진로미결정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으며, 전공만족이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정 전공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으며, 그 예로 조준오와 송주연(2011)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인식 만족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전공만족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여야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전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진로방향과 진로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알아본 강승희(2010)의 연구에서 하위변인 중에서 일반만족은 학과(학부)의 교과내용, 학과(학부)에서 배우는 교과에 대한 흥미, 학과(학부)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데, 일반만족만 진로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만족이 진로결정을 총 분산에서 2%의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을 때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높아지며, 이 두 변인의 관계도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작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밖에도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통해 전공만족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는 실증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강영숙, 이은정, 2006; 신혜원, 2013; 이민선 외, 2010; 이형룡, 박슬기, 2010; 최영준, 2016).

이처럼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고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공만족을 높게 느끼는 학생은 진로결정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라. 진로결정과 진로소명의 관계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결정과 진로소명의 정적 상관관계의 예상할 수 있다(Duff & Sedlacek, 2007; Hirschi, 2011; Stger et al., 2010). 이론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특정 직업경로를 따르는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며, 따라서 진로소명이 사람의 진로의 방향성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Dik & Duffy, 2009). 진로소명은 개인의 자기 개념에 직업 역할을 구현하고, 직업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Duffy & Sedlacek, 2010). 진로소명은 자기 명확성과도 관련이 있으며(Duffy & Sedlacek, 2007),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Super, 1990). 진로소명은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대한 명확성과 목표를 제공하기에 용의

하기 때문에,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진로소명 척도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Prakova외(2015)는 진로소명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타인을 돕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두드러진 진로 목표로써 청년들의 의사결정과 진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발달 구조라고 하였다. Praskova외(2015)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기술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미결정에 관계를 구명한 연구에서 진로소명을 갖는 것은 특정한 진로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반영되며, 진로소명이 진로미결정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 하고, 방향성 따라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진로미결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091명의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발달에 대해 연구한 Duffy와 Sedlacek(2007)은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변인인 진로결정성과 편안함과 자기명확성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결정성과 정보부족에는 낮은 부적영향을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서 진로소명을 가진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해 알고, 자신의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더 성숙하고,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상이 1학년이지만 진로소명이 진로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찾는 것을 비교하여, 진로소명추구는 진로소명존재와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적영향을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상담 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소명의 여부를 알아보고, 진로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진로소명의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Hirschi(2011)는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을 유형화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성에 대한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성의 상관관계는 .489로 비교적 높을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진로소명을 가진 개인은 진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진로발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로에 있어서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되므로, 이는 진로에 있어서 자신이 결과 즉, 진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Galles와 Lenz(2013)은 진로소명은 진로관련 결과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로문제로 상담을 할 때, 낮은 진로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소명의 존재 여부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Hirschi와 Hermann(2013)은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계획, 효능감 및 진로결정의 관계를 6개월 단위로 3번의 나누어 종단연구를 한 결과, 진로소명은 진로계획과 자기효능감을 높이지만, 진로소명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결정성을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les와 Lenz(2013)은 진로소명은 진로관련 결과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로문제로 상담을 할 때, 낮은 진로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에 어려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소명의 존재 여부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raskova외(2015)의 진로소명 측정도구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 문화적 비교를 한 Kim, Praskova, Lee(2016)는 진로미결정과 진로소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소명 및 그 하위변인들과 진로미결정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소명을 강하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은 것 나타났다 이 외에도 Zhang et al.(2015)은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성의 정적 상관관계나 나타났으며,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소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희망에 대해 더 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 자신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높은 결정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진로소명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서도 진로결정에 영향력이 입증되어 왔으며.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에 동기적 요인이 되어 일에 대한 개인적 의미나 목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 진로소명과 전공만족의 관계

Duffy et al.(2011)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학업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현재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생활과 전공 선택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진로 소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소명과 학업만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소명이 개인의 개인 및 학업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직업발달에 진로소명이 잠재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로소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Dik et al.(2008)의 진로소명 하위변인들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직에 대한 초월적 부름을 경험하고, 유아교직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유아교사직의 주요한 동기부여 근원으로 삼는 것은 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음으로, 대학의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들의 소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명을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소명과 직무만족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Bunderson & Thompson, 2009;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Steger et al., 2010; Wrzesniewski, McCauley, & Schwartz, 1997). 그 예로 Wrzesniewski et al.(1997)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직업, 소명, 경력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른 직무 만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직업이나 경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teger et al.(2010)은 일에 대한 즐거움과 소명의 관계에서 상당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Duffy et al.(2011)은 소명과 만족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경력몰입이 소명과 만족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하며,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기 때문에 직무를 더욱 만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전공에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 및 미래의 일에 대한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소명의 관계

사회인지적이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소명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로에 대한 의미를 갖고, 진로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소명의 관계를 살펴본 Dik, Sargent와 Steger(2008)는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진로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Dik et al., 2012; Duffy, et al., 2011).

이와 같이 자신이 진로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신감은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개인적, 타-지향적의미를 가지며, 적극적 참여하는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 종합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II-5>과 같다.

<표 II-5>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관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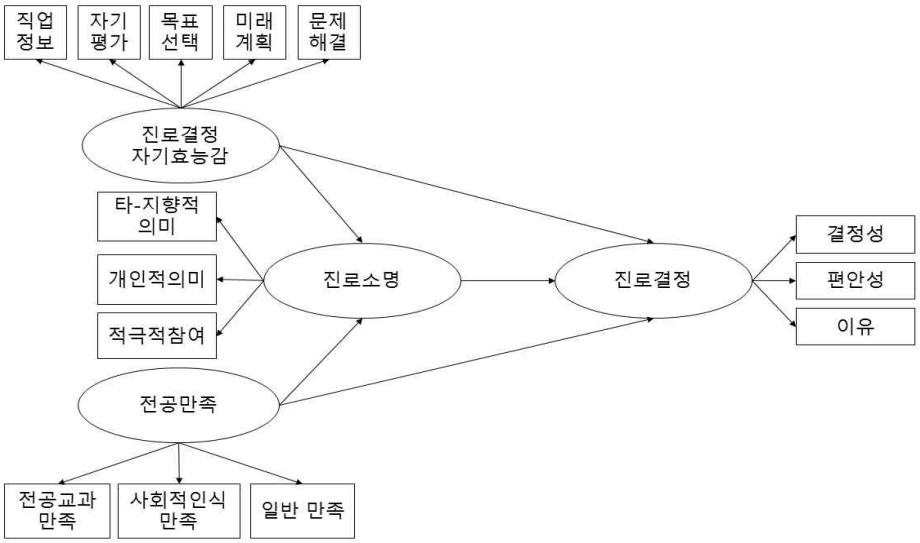
관계	선행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Lent et al.(1994), Taylor & Pompa(1990), Xu & Tracey(2015)
전공만족 →진로결정	강승희(2010), 강영숙 & 이은영(2006), 신혜원(2013), 이민선 외(2010), 이형룡 & 박슬기(2010), 임은미(2009), 조준오 & 송주연(2011), 최영준(2016), Tak & Lee(2003)
진로소명 →진로결정	Duff & Sedlacek(2007), Galles & Lenz(2013), Hirschi(2011), Hirschi & Hermann(2013), Kim et al.(2016), Steger et al. (2010), Zhang et al.(2015)
전공만족 →진로소명	Duffy et al.(2010), Dik et al.(2008), Duffy et al.(201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소명	Dik, et al. (2012), Duffy, Allan, & Dik(2011),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III-1]과 같이 설정하였다.

다음의 연구모형은 각각의 변인들이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다. 둘째,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1] 가설적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5년,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189개교에 1,520,850명이다. 지역별 학교 수와 재학생 수의 분표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수도권 학교(서울, 인천, 경기)의 재학생 수는 578,411명이며, 비수도권 학교(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재학생 수는 942,439명이다. 전체 대학교 재학생 중 수도권 학교 학생은 38%이며, 비수도권 학교 학생은 62%로 나타났다.

<표 III-9> 지역별 4년제 일반 대학의 학교 수와 학생 수 현황

수도권/비수도권	시도	학교 수(개교)	학생 수(명)	비율(%)
수도권	서울	38	371,702	38
	인천	3	32,325	
	경기	29	174,384	
비수도권	부산	12	149,545	62
	대구	2	47,629	
	광주	10	63,660	
	대전	11	85,496	
	울산	2	16,104	
	세종	1	13,563	
	강원	8	74,660	
	충북	10	74,645	
	충남	13	121,323	
	전북	9	66,810	
	전남	10	36,443	
	경북	18	118,461	
	경남	10	62,348	
	제주	2	11,752	
전체		189	1,520,850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std.kedi.re.kr/ 재구성.

2015년 우리나라 대학의 계열, 학년, 성별 별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인문·사회계열은 671,993명, 자연·이공계열은 562,882명으로, 인문·사회계열은 46%, 자연·이공계열은 37%로 나타났다.

<표 III-2> 4년제 대학 전공계열 별 학생 수(201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공	인문 · 사회계열	671,993	52.3
	자연 · 공학계열	562,882	47.7
합계		1,180,875	10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15). Retri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재구성
주) 전공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대학생의 학년 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1학년은 468,904명, 2학년은 620,154명, 3학년은 476,031명, 4학년은 544,215명, 5학년 이상은 6,989명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백분율로 살펴보면 2학년이 가장 많은 29.3%, 4학년이 25.8%, 3학년이 22.4%, 1학년이 22.2%, 5학년 이상이 0.3%로 나타났다.

<표 III-3> 4년제 대학 학년 별 학생 수(2015)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468,904	22.2
	2학년	620,154	29.3
	3학년	476,031	22.4
	4학년	544,215	25.8
	5학년 이상	6,989	0.30
합계		2,113,293	10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15). Retri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재구성
주) 학년은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대학생을 성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790,990명, 여학생이 729,860으로 남학생이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남학생이 52%이고, 여학생이 48%로 나타났다.

<표 III-4> 4년제 대학 성별 별 학생 수(201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790,990	52.0
	여학생	729,860	48.0
합계		1,520,850	10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15). Retri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재구성
주) 성별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나. 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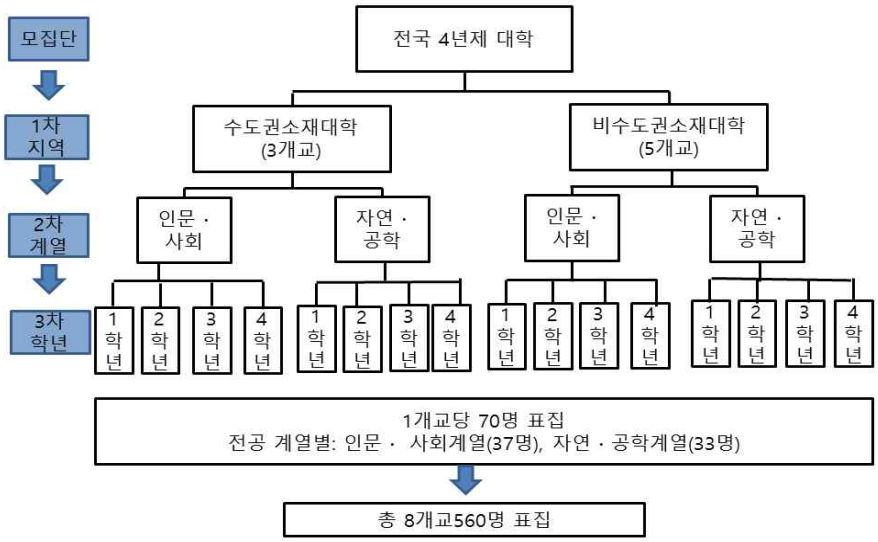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모집단의 크기는 1,520,850명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 이상 일 경우 표본 크기는 384가 적합하다(Krejcie & Morgan, 197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570명으로 설정하였다.

일반 4년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학교 소재 지역, 성별, 학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 수는 수도권 70개교와 비수도권 119개가 있고, 그 비율은 1:1.6이다. 전공 계열로 대학생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617,993명과 자연·이공계열이 565,888명으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이공계열의 재학생 수의 비율은 약 1.1:1로 나타났다. 학년별 학생 수는 1학년 468,904명, 2학년 620,154명, 3학년 476,031명, 4학년 544,215명으로 그 비율은 1:1.3:1:1.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사용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 안에 어떤 속성에 의해 여러 가지 하부집단이 있을 시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법으로써,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를 이를 표집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전공(고향자, 1992; 문승태), 학년(고향자, 1993; 김봉환, 1997, 허자영, 1997, Daniel & Buck, 1984)에서 진로결정성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층화 기준이 많아지면, 최소 크기 집단의 적정 표본수가 30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키기 어렵진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소재 지역(수도권/비수도권)과 전공, 학년에 따른 유층화 군집 표집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지역별로 학교 단위 군집표집을 실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로 표집 하였다. 또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은 제외시켰다. 각 학교 당 70명을 표집 하였고, 2차적으로 군집 표집 된 대학별로 계열을 나누어 인문 · 사회 계열과 자연 · 공학계열로 구분하여 1.1:1의 비율에 따라 인문 · 사회계열 37명, 자연 · 공학계열 33명을 표집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비율에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따라서 총 8개교에 56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표집방법은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층화군집표집 비율표집 과정

3. 조사도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 연구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진로 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그리고 전공 계열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은 3개의 하위 요인에 대해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소명은 3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14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25문항, 전공 만족은 3개의 하위 요인에 대해 17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대한 4개 문항을 합하여 총 7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 Likert 척도 및 선택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Ⅲ-5> 조사도구 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진로결정	결정성	2	I. 1, 2
	편안성	2	I. 3, 4
	이유	9	I. 5, 6, 7, 11, 12, 13, 14, 15, 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5	II. 1, 10, 15, 19, 23
	자기평가	5	II. 5, 9, 14, 18, 22
	목표선택	5	II. 2, 6, 11, 16, 20
	미래계획	5	II. 3, 7, 12, 21, 24
	문제해결	5	II. 4, 8, 13, 17, 25
전공만족	전공교과만족	5	III. 2, 3, 6, 8, 13
	학과인식만족	6	III. 1, 4, 7, 10, 11, 14
	일반만족	6	III. 5, 9, 12, 15, 16, 17
진로소명	타-지향적 의미	5	IV. 1 -5
	개인적 의미	3	IV. 6, 8, 9
	적극적 참여	6	IV. 7, 10, 11, 13, 14,15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학년, 계열, 학교 소재지	4	V. 1-4
총 문항		73	-

가. 진로결정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고홍월(2007)이 수정한 진로결정프로파일(CDP)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Jones와 Chenery(1980)가 개발한 VDS(Vocational Decision Scale)를 바탕으로, Jones(1989)가 CDP(Career Decision Profile)로 발전 시켰다. 또한 홍혜경과 이혜성(1998)이 번안하여, 8점 Likert 척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홍월(2007)이 이를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결정성(2문항), 편안성(2문항)과 미결정 이유(12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미결정의 이유는 자기명료성, 직업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하위 변인은 역채점 하였다. 결정성 척도는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며, 편안성 척도는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미결정 이유 척도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각 이유들(자기명료성, 직업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CDP의 내적일치도는 고홍월(2007)의 연구에서 .818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김남순(2000)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결정성은 .75, 편안성은 .81, 이유는 .83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결정수준의 내적일치도는 총 .746, 결정성 .808, 편안성 .742, 이유 .768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내적일치도는 결정성 .804, 편안성 .793, 이유 .667, 총 .743로 신뢰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진로결정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분</th><th colspan="4">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th></tr>
<tr><th colspan="2">예비 조사(n=65)</th><th colspan="2">본 조사(n=421)</th></tr>
<tr><td colspan="3">진로결정수준</td><td colspan="2">.746</td><td colspan="2">.743</td></tr>
<tr><td rowspan="6"></td><td colspan="2">결정성</td><td colspan="2">.808</td><td colspan="2">.804</td></tr>
<tr><td colspan="2">편안성</td><td colspan="2">.742</td><td colspan="2">.793</td></tr>
<tr><td rowspan="4">이유</td><td>자기명료성</td><td rowspan="4">.768</td><td>.764</td><td rowspan="4">.667</td><td>.738</td></tr>
<tr><td>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td><td>.525</td><td>.439</td></tr>
<tr><td>결단성</td><td>.674</td><td>.679</td></tr>
<tr><td>진로선택의 중요성</td><td>.530</td><td>.514</td></tr>
</table>

나. 진로소명

진로소명을 측정하게 위해 Praskova외(2015)가 개발한 CCS(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를 번안하고 한국인 대상으로 타당화한 Kim, Praskova와 Lee(2016)의 진로소명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타-지향적 의미(5문항), 개인적 의미(4문항), 적극적 참여(6문항)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6 Likert 척도이며(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총 문항 수는 16문항이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소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Praskova와 Lee(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타-지향적의미 .86, 개인적 의미 .80, 적극적참여 .82, 전체 진로소명의 내적일치도는 .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타났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소명의 내적일치도는 타-지향적 의미 .845, 개인적 의미 .584, 적극적 참여 .504, 총 진로소명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20로 나타났다.

개인적 의미와 적극적 참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개인적 의미와 적극적 참여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Kim 외(2016)에서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7번 문항 '나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인가 하게 하는 이유를 줄 진로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를 개인적의미로 보는 미국 대학생과 달리 한국 대학생은 이 문항을 적극적 참여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7번 문항을 적극적 참여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개인적의미의 7번 문항을 포함 했을 때 신뢰도는 .673으로 나타났고, 문항들과의 상관계수도 .28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후 개인적의미의 신뢰도는 .722로 상승하였고, 적극적 참여의 문항에서 12번 문항 '나는 현재 목표로 하는 직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끔은 그 외의 어떤 것도 흥미롭지 않다.' 포함 시 신뢰도는 .491로 나타났으며, 다른 문항과 부적 상관관계 나타났다. 이 문항은 역코딩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신뢰도가 낮게 나와 이 문항을 제거 시 신뢰도는 .768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을 적극적 참여 요인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Ⅲ-7> 진로소명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 조사(n=65)	본 조사(n=241)
진로소명		.820	.870
	타-지향적 의미	.845	.874
	개인적 의미	.584	.722
	적극적 참여	.504	.768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ein, & Taylor(1996)가 개발하고 이은경(2001)이 번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의 단축형으로, 하위요인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은경(2001)은 CDMSES-SF를 수정하여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타당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제외한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은경(2001)이 번안한 CDMSES-SF를 사용하였다. 응답점수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관련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총점 .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계수는 총 .894, 직업정보수집 .671, 자기평가 .694, 목표선택 .666, 문제해결 .588로 문제해결요인이 다소 낮게 나왔다. 본 조사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계수는 총 .904, 직업정보수집 .635, 자기평가 .700, 목표선택 .716, 문제해결 .652로 예비조사보다 높게 나왔다.

<표 III-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 조사(n=65)	본 조사(n=4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94	.902
	직업정보수집	.671	.635
	자기평가	.694	.684
	목표선택	.666	.700
	미래계획	.697	.716
	문제해결	.588	.652

라. 전공만족

전공만족의 측정도구는 Illinois 주립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와 Braskamp 등이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5개 하위요인과 총 27문항으로 전공만족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계현과 하혜숙의(2000)의 전공만족척도 중 전공교과만족(5문항), 사회적인식만족(6문항), 일반만족(6문항)을 택하여 전공만

족을 측정하였다. 응답 양식은 Liker 5척도이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 수는 총 17문항이다.

김계현과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공학문관심과 만족 .88, 학과인식만족 .89, 전공교과만족 .73으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 전공만족의 내적일치도는 총 .906, 전공교과만족은 .681, 사회적인식만족 .841, 일반만족 .877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학과만족의 전체 내적일치도가 .935, 전공교과만족은 .797, 사회적인식 .874, 일반만족 .904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Ⅲ-9> 전공만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 조사(n=65)	본 조사(n=421)
전공만족		.906	.935
	전공교과만족	.681	.797
	사회적인식만족	.814	.874
	일반만족	.877	.904

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6 10월 20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표집 대상인 8개의 대학 내 학과 조교 및 학생의 협조를 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설문지와 URL를 전달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모집단의 표집을 위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학년과 전공계열에 대해 비율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 직접 학과를 통해서 설문을 한 학교에는 학생들과 학과조교에게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고, 그 외 협력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여 성실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을 도모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총 56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482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회수율 86.0%).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2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 자료율 75.1%).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2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할 통계방법을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10>과 같다.

<표Ⅲ-10> 연구 가설별 분석 방법

연구가설		통계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 1.	대학생의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
가설 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입력자료 점검

이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입력자료를 점검하였다.

첫째, 결측치를 분석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할 입력 자료의 행렬 계산에 영향을 주고, 통계적 추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처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배병렬,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총 문항의 10%보다 적게 나타난 경우에는 임의 결측치라고 가정하고 평균대치법(mean substitution)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결측이 관측된 자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평균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처리 결과 22부의 결측치가 대체되었다.

둘째, 이상치를 분석 하였다. 이상치는 다른 자료와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 값을 말하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정교화하기 위해 이상치(outlier)분석하여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indows SPSS 18.0의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의 절대값이 3 이상인 경우 이상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3보다 큰 자료를 이상치로 보고 제거하였다. 제거기준이 되는 유의수준은 .001로 설정하여, 총 39부의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셋째,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어야한다.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은 모든 다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으며, 단변량 정규성의 기준으로는 Curran, West, &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0| 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

넷째,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인 간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잘못된 분석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김준우, 2007),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10, 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10,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였다.

나.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이란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계를 의미한다. 첫째,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구해지며,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지수를 절대적합기준(Chi-Square,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 간명접합지수(PRATIO, PNFI, PCFI)를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분석하는 수렴타당도를 나타내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분석 및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관찰변인의 적합분산을 나눈 값과 1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수치인 다중상관자승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다.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가설적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변인들의 가설적 구조관계를 설정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을 외생변인으로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수준을 내생변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여러 가지의 적합지수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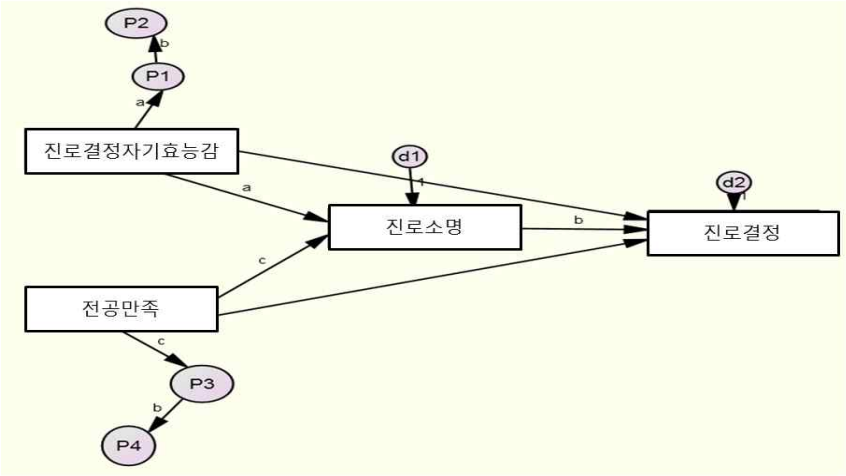
<표Ⅲ-11> 적합도 지수 해석 기준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적합기준		
	Chi-Square	p > .05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5
	RMSES(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TLI(Tuker & 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간명접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50, .60
	PNFI(Parsimony NR)	≥ .50, .60
	PCFI(Parsimony CRI)	≥ .50, .60

자료: 문수백. (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또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모형 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모형 내 내생 잠재변인에 대해 다중상관자승을 산출하여 변인들이 모형을 통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중상관자승 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타 변인들에 의한 설명량이 많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최종 구조방정식모형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효과란 두 변인들 간의 관계에 다른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인 다중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은 팬텀 변인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이현응,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유의성까지 검증하도록 팬텀변인을 활용한 붓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인을 포함한 가설적 구조모형은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팬텀변인을 포함한 가설적 구조모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소명→진로결정’ 경로는 p2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전공만족→진로소명→진로결정’의 경로는 p4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였다. 다음, 붓스트레핑 절차를 통해 단일 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계수추정치(p2와 p4)와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 학생이다. 2015년 기준 모집단은 1,520,850명으로, 이 연구에 최종 사용된 자료의 응답자는 421명이다. 각 특성에 따라 모집단과 비교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대학 소재 지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표 IV-1>참조), 수도권은 181명으로 42.9%, 비수도권은 240명으로 57.1%로 나타났다. 모집단과 비교하여, 응답자 중 수도권 소재지역의 학생 비율이 약 4%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1명으로 54.9%, 여학생이 190명으로 45.1%의 비율이 나타났으며, 모집단과 비교하여 남학생의 비율이 약 2% 더 많았다.

<표 IV-1> 응답자와 모집단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성별 별 학생 수 비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모집단	응답자	모집단	응답자
소재 지역	수도권	578,411	181	38.0	42.9
	비수도권	342,439	240	62.0	57.1
성별	남학생	790,990	231	52.0	54.9
	여학생	729,860	190	48.0	45.1
합계		1,520,850	421	100.0	100.0

주) 모집단의 총 학생 수는 2015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전공 계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표 IV-2>참조), 인문·사회계열은 212명으로 50.3%, 자연·공학계열은 209명으로 49.7%로 나타났다. 모집

단과 비교하면 응답자의 자연·공학계열의 비율이 약 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응답자와 모집단의 전공계열 별 학생 수 비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모집단	응답자	모집단	응답자
전공	인문 · 사회계열	671,993	212	52.3	50.3
	자연 · 공학계열	562,882	209	47.7	49.7
합계		1,180,875[1]	421	100.0	100.0

주) 모집단의 총 학생 수는 2015년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함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표 IV-3>참조), 1학년이 136명으로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학년이 104명으로 24.7%, 3학년이 89명으로 21.1%, 4학년이 92명으로 21.9%로 나타났다. 모집단과 응답자의 분포를 비교하면 모집단의 분포는 2학년, 4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와 모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포가 비슷하므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 응답자와 모집단의 학년 별 학생 수 비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모집단	응답자	모집단	응답자
학년	1학년	468,904	136	22.2	32.3
	2학년	620,154	104	29.4	24.7
	3학년	476,031	89	22.6	21.1
	4학년	544,215	92	25.8	21.9
합계		2,109,304	421	100.0	100.0

주) 모집단의 총 학생 수는 2015년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2.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는 진로결정,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각각의 잠재변인으로, 각 1개~2개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실제 범위 등의 개괄적인 기술 통계치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변인		응답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환산평균
진로결정		13-52	19	46	31.6	5.19	2.64
	결정성	2-8	2	8	5.9	1.50	2.99
	편안함	2-8	2	8	4.6	1.60	2.27
	이유	9-36	12	31	21.0	3.46	2.34
진로소명		14-84	26	81	54.9	10.45	3.92
	타-지향적 의미	5-30	7	30	20.8	4.94	4.18
	개인적 의미	3-18	5	18	12.4	2.89	4.15
	적극적 참여	6-36	8	36	21.5	5.08	3.5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125	50	125	85.7	12.39	3.42
	직업정보수집	5-25	7	25	16.5	2.89	3.30
	자기평가	5-25	8	25	17.6	2.88	3.55
	목표선택	5-25	8	25	17.1	3.07	3.43
	미래계획	5-25	9	25	16.8	3.19	3.35
	문제해결	5-25	7	25	17.1	2.99	3.50
전공만족		17-85	21	85	61.0	11.65	3.59
	전공교과만족	5-25	7	25	18.0	3.44	3.60
	사회적인식만족	6-30	6	30	21.4	4.86	3.57
	일반만족	6-30	6	30	21.6	4.86	3.60

주1) 진로결정은 4점 환산 평균 점수이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5점 환산 평균 점수이고, 진로소명은 6점 환산 평균 점수임.

진로결정의 관찰변인은 결정성, 편안성, 이유로, 그 값이 증가 할수록 진로결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의 평균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도출해 보면, 결정성은 2.99, 편안성은 2.27, 이유는 2.34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의 전체 평균은 2.64로 나타났다. 모든 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찰변인은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그 값이 증가 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들의 평균을 5점을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찰변인의 환산평균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3.42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수집 3.30, 자기평가 3.55, 목표선택 3.43, 미래계획 3.35, 문제해결 3.50으로 나타났다.

진로소명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 의미. 적극적 참여로, 그 값이 증가 할수록 진로소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의 평균을 6점을 만점으로 한 환산평균을 살펴보면, 진로소명의 전체 평균은 3.92로 나타났으며, 타-지향적 의미 4.18, 개인적 의미 4.15, 적극적 참여 3.5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의 관찰변인은 전공교과 만족, 사회적인식 만족, 일반 만족으로, 그 값이 증가 할수록 전공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환상평균 값을 살펴보면 3.59로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교과만족 3.60, 사회적인식 만족 3.57, 일반만족 3.60으로 나타났다.

나.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활용하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과 일반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진다. 관찰변인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관찰변인의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변인		왜도		첨도	
		지수	결정률 (C.R.)	지수	결정률(C.R.)
진로결정					
	결정성	-.160	-1.305	-.869	-3.641
	편안함	.189	1.756	-.590	-2.473
	이유	.136	1.110	-.093	-.379
진로소명					
	타-지향적 의미	-.207	-1.735	-.207	-.865
	개인적 의미	.096	.804	-.586	-2.455
	적극적 참여	.040	.337	-.092	-.38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131	-1.097	.020	.084
	자기평가	-.069	-.578	000	000
	목표선택	-.061	-.513	.211	-.882
	미래계획	.119	.999	-.231	-.968
	문제해결	-.153	-1.280	.243	1.018
전공만족					
	전공교과만족	-.417	-3.489	.320	1.340
	사회적인식만족	-.375	-3.144	-.065	-.271
	일반만족	-.416	-3.489	.085	-.357
다변량 정규성				21.83	10.275

이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측정한 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3.0미만, 첨도 절대값이 8.0 이하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첨도지수가 21.83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며,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미지수 추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김계수, 2010), 단변량 정규성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09).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 간 높은 상관관계는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공차(>.10, 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10,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였다(Kline, 2010). 분석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소명			
	타-지향적 의미	.747	1.339
	개인적 의미	.421	2.373
	적극적 참여	.521	1.9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422	2.371
	자기평가	.398	2.511
	목표선택	.354	2.821
	미래계획	.328	3.045
	문제해결	.615	1.627
전공만족			
	전공교과만족	.372	2.690
	사회적인식만족	.525	1.907
	일반만족	.335	2.982

주)종속변수: 진로결정

분석결과 공차의 경우 .328 ~ .747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339 ~ 2.9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공차 .10이상, 분산팽창지수 10이하의 기준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관찰변인은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변인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간의 상관행렬은 다음 <표 Ⅳ-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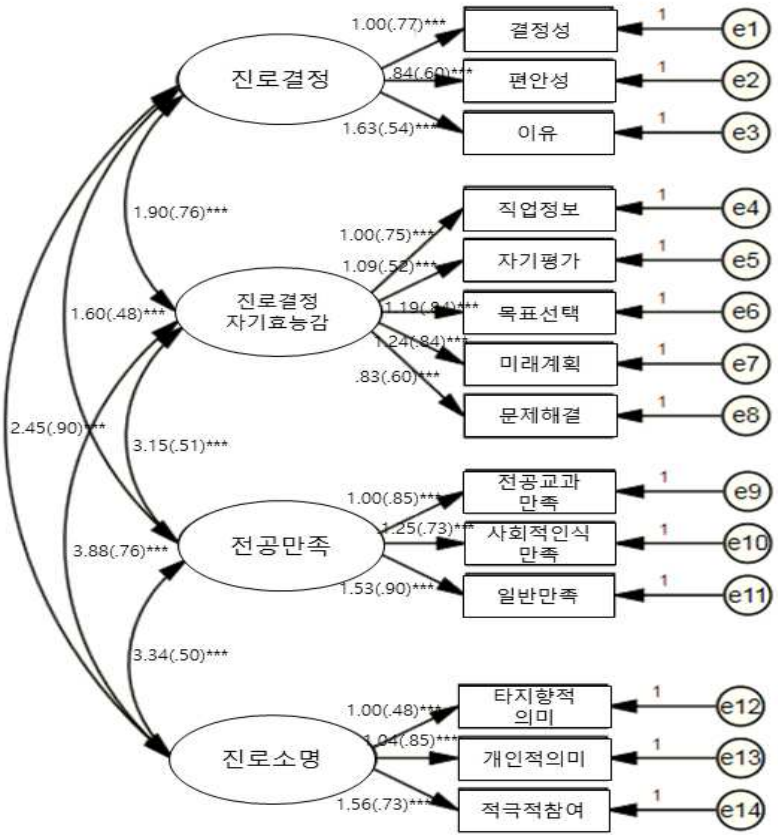
<표 Ⅳ-7>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진로결정															
1	결정성	1													
2	편안성	.481***	1												
3	이유	.389***	.337***	1											
진로소명															
4	타-지향적의미	.296***	.208***	.123**	1										
5	개인적의미	.626***	.413***	.480***	.423***	1									
6	적극적참여	.475***	.376***	.355***	.418***	.597***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7	직업정보수집	.436***	.371***	.240***	.156***	.402***	.428***	1							
8	자기평가	.469***	.396***	.352***	.292***	.556***	.534***	.581***	1						
8	목표선택	.543***	.472***	.361***	.282***	.586***	.514***	.591***	.689***	1					
10	미래계획	.446***	.378***	.346***	.229***	.490***	.525***	.717***	.669***	.697***	1				
11	문제해결	.235***	.294***	.203***	.167***	.301***	.342***	.476***	.548***	.500***	.507***	1			
전공만족															
12	전공교과만족	.243***	.307***	.199***	.255***	.337***	.282***	.323***	.385***	.385***	.335***	.228***	1		
13	사회적인식만족	.293***	.343***	.149***	.237***	.355***	.283***	.292***	.345***	.393***	.332***	.198***	.609***	1	
14	일반만족	.312***	.313***	.252***	.254***	.388***	.272***	.304***	.397***	.399***	.336***	253***	.769***	.657***	1

주1)유의도: *p< .05, **p< .01, ***p< .001

3.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인과 관찰변인, 오차를 활용하여 관찰변인을 통해 잠재 변인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연구에 서의 잠재변인인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에 대한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1,2]

주1) 유의도: *p< .05, **p< .01, ***p< .001
주2) 계수는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로 표기함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총 11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측정모형 χ^2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χ^2검정은 해석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χ^2검정을 제외한 나머지 접합도 지수는 이 연구에의 자료를 잘 설명하며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정한 측정모형을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Ⅳ-8>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기준				
	Chi-Square	p > .05	.000	미해석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934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5	.902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066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932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956	적합
	TLI(Tuker & Lewis Index)	≥ .90	.943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955	적합
간명접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50, .60	.780	적합
	PNFI(Parsimony NR)	≥ .50, .60	.727	적합
	PCFI(Parsimony CRI)	≥ .50, .60	.745	적합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에서는 다수의 관찰변인들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성있고 타당성있게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지를 분석 하는 수렴타당도를 나타내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분석 및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표 IV-9> 측정모형의 요인계수[1]

변인		비교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진로결정					
	결정성	1.000	.765	-	-
	편안함	.841	.604	.076	11.100***
	이유	1.633	.543	.164	9.973***
진로소명					
	타-지향적 의미	1.000	.478	-	-
	개인적 의미	1.042	.849	.112	9.261***
	적극적 참여	1.564	.727	.177	8.8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1.000	.75	.-	-
	자기평가	1.088	.818	.066	16.463***
	목표선택	1.191	.839	.070	16.913***
	미래계획	1.240	.843	.073	16.996***
	문제해결	0.834	.604	.070	11.853***
전공만족					
	전공교과만족	1.000	.847	-	-
	사회적인식만족	1.247	.729	.078	16.075***
	일반만족	1.526	.904	.078	19.651***

주1) *p< .05, **p< .01, ***p< .001

Bagozzi와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 부하량이 .50이상, .95 이하 일 때 수렴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는 타-지향적의미 .478를 제외한 모든 관찰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수렴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모든 C.R값이 9.261~ 19.651로 2.58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요인부하량이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추정된 각 잠재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진로결정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762
진로결정	↔	전공만족	0.484
진로결정	↔	진로소명	0.90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전공만족	0.5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소명	0.758
전공만족	↔	진로소명	0.495

Rea & Parker(2005)에 따르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80에서 1.00인 경우 강한 상관관계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별타당도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484~.902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 간 변별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도의 경우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관찰변인의 적합분산을 나눈 값과 1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수치인 다중상관자승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측정모델의 R^2은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변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0.5이상

의 값을 가지면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본다(배병렬, 2009).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관찰변인의 R^2 값은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다중상관자승

변인		다중상관자승
진로결정		
	결정성	.586
	편안함	.365
	이유	.295
진로소명		
	타-지향적 의미	.228
	개인적 의미	.722
	적극적 참여	.52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562
	자기평가	.670
	목표선택	.704
	미래계획	.711
	문제해결	.365
전공만족		
	전공교과만족	.717
	사회적인식만족	.532
	일반만족	.817

분석결과, 편안함, 이유, 타-지향적의미와 문제해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편안함의 경우 자신이 진로결정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 모두의 편안함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오차분산이 높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유의

경우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개인적 상황요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차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지향적의미는 자신의 직업 혹은 일에 대한 의미를 타-지향적 즉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도로써 이를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차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오차분산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의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를 제공하여 오차 분산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문제 해결의 다중상관자승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김보경, 2011, 김태환, 2013, 이성식, 2007).

4.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을 통해 신뢰롭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첫 번째 연구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가.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설적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 가설적 구조모형이 얼마나 표본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총 11개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표 IV-12>가설적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 결과	적합 여부
절대적합기준				
	Chi-Square	p >.05	.000	미해석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934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5	.902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 매우 좋음 ≤ .08: 좋은 편임 ≤ .10: 적합	.066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932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956	적합
	TLI(Tuker & Lewis Index)	≥ .90	.943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955	적합
간명접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60	.780	적합
	PNFI(Parsimony NR)	≥ .50, 60	.727	적합
	PCFI(Parsimony CRI)	≥ .50, 60	.745	적합

나.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이 이 연구의 표본에 부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3>에 제시되었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수준이 검증되었다.

<표 Ⅳ-13>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1]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전공만족	→	진로소명	.123	.149	.046	2.6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소명	.743	.683	.099	7.511***
진로소명	→	진로결정	.603	.756	.108	5.6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156	.180	.080	1.954
전공만족	→	진로결정	.012	.019	.037	.332

주1) *p<.05, **p<.01, ***p<.001

또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분석함으로써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다중상관자승이 나타내는 수치는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가설적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

변인	다중상관자승
진로소명	.591
진로결정	.828

다. 팬텀변인을 사용한 다중매개효과 분석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에 매개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총 효과를 추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고, 붓스트레핑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결과[1,2]

구분	간접효과			총 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부트스트랩 추정P값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붓스트레핑 추정P값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	.448	.516	.002	.604	.696	.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소명 → 진로결정	.061***	-	.001	-	-	-
전공만족 → 진로결정	.074	.112	.007	.086	.131	.043
전공만족 → 진로소명 → 진로결정	.025***	-	.002	-	-	-
진로소명 → 진로결정	-	-	-	.603***	.756	.001

주1) 붓스트레핑 신뢰수준 95%, 붓스트레핑 샘플 수 1000개
주2) *p<.05, **p<.01, ***p<.001

라.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영향관계

가설 2-1 **H_1 :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0 :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경로계수(β)는 .18(C.R.=1.9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채택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립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설 2-2 **H_1 :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0 :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경로계수(β)는 .019(C.R=.33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를 기각하고 영가설인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가설 2-3 **H_1 :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0 :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수준의 경로계수(β)는 .603(C.R.=5.60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를 채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3-1 **H_1 :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정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_0 :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정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계수(B)는 .061(p<.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를 채택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설 3-2 **H_1 :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정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_0 :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정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B)는 .02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

하고,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를 채택하였다. 즉, 전공만족은 진로소명을 통해 진로결정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이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인과적 관계 모형의 검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적접인 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이 높더라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향상하기 위해서 진로소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은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이 완전 매개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진로소명 통해 효과크기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진로소명의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진로소명을 진로분야의 연구 영역으로 확장하여,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와 경로를 분석했다는 것에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나. 연구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논의

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nt et al., 1994, Xu & Tracey, 2015)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 자신을 평가,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선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인지적 믿음이 자신이 진로결정에 동기적 요인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진로결정에 직접접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강승희, 2010; 강영숙 & 이은영, 2006; 신혜원, 2013; 이민선 외, 2010; 이형룡 & 박슬기, 2010; 임은미, 2009; 조준오 & 송주연, 2011; 최영준, 2016, Tak & Lee, 2003).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전공교과에 대해 만족하고. 자

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인식에 만족하고, 일반적인 자신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진로결정이 높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전공에 만족하더라도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교과 과정과 전공과 관련된 인식, 일반적인 학과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개인의 진로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않는 다는 것이다.

3)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진로소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Duff & Sedlacek, 2007; Galles & Lenz, 2013; Hirschi, 2011; Hirschi & Hermann, 2013; Kim et al., 2016; Steger et al., 2010, Zhang et al., 2015). 최근 여러 학자들은 진로소명과 진로와 관련 결과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진로소명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진로소명의 존재는 진로소명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진로소명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진로의사결정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진로소명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진로에 대한 높은 결정성을 보이는 것이다(Duffy & Sedlacek, 2007). 이는 진로소명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을 넘어, 진로소명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혹은 진로상담 시 제공함으로써 진로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소명이 여러 문화권에서 연구되어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입증되어 왔으며, 학생들 뿐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몰입, 직무만족 등과 관련하여 그 영향력이 보고되었다(Bunderson & Thompson, 2009;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Steger et al., 2010; Wrzesniewski et al., 1997) 이는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직무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소명을 보다 진로발달에 개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학생들의 진로 및 삶의 영역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

4) 진로소명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 파악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소명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소명을 통해서만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과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와 자신의 미래 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핵심적인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 시, 진로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만족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전공만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의 간접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이 전공에 만족감을 느끼더라도 진로소명, 즉 자신의 미래 일을 남을 배려하는 의미와 개인적 의미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과업에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진로결정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족감의 인지적인 측면을 넘어서, 진로와 관련된 의미를 알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진로결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전

공에 대한 만족함을 넘어서 미래 자신이 가지게 될 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진로상담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결론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및 진로소명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진로소명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총 189개교의 재학생 수는 1,520,850명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층화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활용하였고, 수도권 3개교(210명), 비수도권5개교(350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과 학년을 고려하여, 56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고, 각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 도구는 고홍렬(2007)의 진로결정프로파일(CDP)를 사용하였고, 하위변인은 진로 결정성, 편안성의 각 2문항과 미결정의 이유의 9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일치도계수는 .667~.804, 진로결정수준의 총 내적 일치도계수는 .743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Taylor & Betz(1983)의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5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652~.716, 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는 .902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김계현, 하혜숙(2000)의 전공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으로는 전공교과만족, 사회적인식, 일반만족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797~.904로 전공만족의 전체 내적일치도가 .935 나타났다. 진로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Praskova et al.(2015)의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으로는 타-지향적 의미, 개인적 의미, 적극적 참여 3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내적일치도 계수는 .722~.874로 총 진로소명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70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 560부를 배부하여 482부가 회수 되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 이상치 응답, 결측치 처리를 하여 최종 4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어 유효 자료율은 75.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Window SPSS 2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5%의 유의 수준으로 설정하여 처리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대체로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구조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영향(β=.60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소명의 유의미한 간접효과(B=.061)가 나타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학과만족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소명의 유의미한 간접효과(B=.025)가 나타나, 학과만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소명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2. 결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결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 변인 간의 인과관계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 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효능감과 성공기대를 높일 뿐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결정과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촉진 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공교과, 전공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일반적인 만족을 하더라도 전공이 직접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확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과차원에서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와 연계하여 진로결정에 확신과 편안성을 느낄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 및 미래의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소명의 개념과 자신의

진로에서 일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진로상담과 진로지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넘어 폭넓은 시각으로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진로소명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업에 자신감을 갖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진로소명 가지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더라도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수행했을 때 진로결정 과정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제언

가.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교육 현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에 근거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각 변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각 변인과 진로소명을 연계하여 진로결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이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직접접인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소명을 통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진로교육이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 목표설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교과 편성과 사회적인식에 대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전공과 관

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관련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의미와 타-지향적의미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소명이 대학생의 진로 지도 및 진로 상담에 개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진로와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과 진로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소명을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개입시킴으로 진로결정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후속연구 제언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층화기준을 활용하여 모집단은 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나, 연구 수행에 따라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별로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시 필요한 개입 및 방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종속변인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편안성, 미결정 이유를 유형화하여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대상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구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한-편안한, 진로를 결정한-불편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편안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불편한과 같은 유형이나, 진로 미결정의 이유로 진로미결정상태를 분류하여 진로소명 혹은 진로관련 변인과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진로결정상태의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에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개입의 방향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을 탐색하여 진로소명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관련 변인에 대한 진로소명의 영향력을 구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소명의 영향력이 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의 선행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을 선정하였지만 진로소명의 중요성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진로 관련 변인들과 진로소명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소명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ik et al. (2008)의 측정도구는 24문항으로 초월적부름,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초월적 부름에 대한 문항이 종교 유무에 따라 다르게 받아 드릴 수 있으며, 문항이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등을 포함하여 대학생이 사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도구의 단축형은 2문항만으로 진로소명의 존재를 측정하기에 다차원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askova(2015)의 측정도구는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2문항이 미국 연구와 비교해 다르게 해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소명이 국내 대학생에 맞추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강영숙, 이은정. (2006).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1-22.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홍월. (2007).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과 의사결정 상태와의 관계. **상담학 연구**, 9(1), 147-164.

김경식, 이현철. (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4.

김경욱, 류진혜. (2009).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73-92.

김계수. (2010). **Amos 180.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계현,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 (學科)(학부 (學部)) 만족 (滿足) 의 要因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김남순, 배종훈. (2000). 진로결정검사(CDP)의 표준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4**(3), 83-98.

김미경.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김준우. (2007). **즐거운 SPSS, 풀리는 통계학**. 서울: 박영사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대학생의 소명과 학과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49-264.

김태석. (201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배종훈. (2001). 군집 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1), 223-244.

신혜원. (2013).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1), 55-66.

심예린, 유성경. (2012). 한국판 소명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과지: 상담 및 치료, 24**(4), 847-872.

양난미, &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유채은, 조규판.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143-166.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1**, 13-21.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민선, 이윤정, 문희강, 이예영. (2010).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1), 1870-1879.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이현응.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연구, 16**(3), 225-249.

이형룡, 박슬기. (2010). 호텔, 외식, 관광 전공 대학생의 진로 장벽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공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3**, 79-105.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33-50.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화와 개인, 인지변인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준오, 송주연. (2011). 예비유아교사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아동교육, 20**(3), 287-301.

최동선. (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준. (2016). 바리스타전공 대학생들의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1**(3), 179-194.

최윤정, 구본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 연구, 11**(4), 1675-1690.

최은영.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하혜숙. (2000). **대학생의 學科 (學部) 滿足과 學校滿足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자영. (1996). **대학생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gozzi, R. P., & Yi, Y. (1991).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4), 426-439.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94.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28*(5), 399-410.

Betz, N. E., K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47.

Bott, E. M., & Duffy, R. D. (2015). A two-wave longitudinal study of career calling among undergraduates testing for predict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250-264.

Brown, G. S., & Strange, C. (1981).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major and career choice status to anxiety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328 - 34.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Cranny, C. J., Smith, P. C., & Stone, E. F. (Eds.). (1992). J*ob satisfaction: How people feel about their jobs and how it affects their performance.* New York: Lexington Books.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 1*(1), 16-29.

Daniels, M. H., & Buck, J. N. (1983).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 - 450.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In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Dobrow, S. R. (2013). Dynamics of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musicia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4), 431-452.

Dobrow, S. R., & Tosti-Kharas, J. (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4), 1001-1049.

Douglass, R. P., & Duffy, R. D. (2015). Calling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58-65.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69-479.

Duffy, R. D., Allan, B. A., & Dik, B. J. (2011).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74-80.

Duffy, R. D., Douglass, R. P., Autin, K. L., England, J., & Dik, B. J. (2016). Does the dark side of a calling exist? Examining potential negative effect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6), 634-646.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C. L., & Dik, B. J. (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

Duffy, R. D., Douglass, R. P., Autin, K. L., & Allan, B. A. (2014). Examining predictors and outcomes of a career call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309-318.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590 - 601.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1), 27 - 41.

Elangovan, A. R., Pinder, C. C., & McLean, M. (2010). Calling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428-440.

Fouad, N. A., Smith, P., & Enochs, L.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Evidence for Middle school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career attitude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1), 17-31.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 - 9.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 - 86.

Galles, J. A., & Lenz, J. G. (2013). Relationships among career thoughts, vocational identity, and call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3), 240-248.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Harren, V. A. (1979). A Model of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Hawkins, J. G., Bradley, R. W., & White, G. W. (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 - 03.

Hirschi, A. (2011). Callings in career: A typological approach to essential and optional compon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60 - 73

Hirschi, A., & Herrmann, A. (2013).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Investigating developmental patterns and temporal preced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51-60.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5.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477.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

Jurgens, J. C. (2000). The undecided student: Effects of combining levels of treatment parameters on career 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client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3), 237-250.

Kim, H. J., Praskova, A., & Lee, K. H. (2016).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Career Calling Scale for Korea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6.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 - 80.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ounsbury, J. W., Tatum, H. E., Chambers, W., Owens, K. S., & Gibson, L. W. (1999). An investigation of career decidedness in relation to" Big Five" personality constructs and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Journal, 33*(4), 646-646.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Newman, J. L., Gray, E. A., & Fuqua, D. R. (1999). The Relation of Career Indecision to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74 - 187.

Osipow, S. H. (1980).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Parsons. F. (1967). *Choosing a vocation*. New York: Agathon Press.

Peterson, C., Park, N., Hall, N., & Seligman, M. E. (2009).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2), 161-172.

Praskova, A., Creed, P. A., & Hood, M. (2015).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91-106.

Rea, L. M., & Parker, R. A. (2005). *Research methodology: from planning to execution*(3rd ed). SaoPaulo: Pioneira.

Savickas, M. L., &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Savicks. M. L. (1995).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4), 363-373.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

Slaney, R. B.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Erlbaum.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82 - 96.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 - 262)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 17-31.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a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8-106

Wanberg. C.R., & Muchinsky, P.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Xu, H., & Tracey, T. J. (2014). Ambiguity Tolerance With Career Indecision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4), 519-532.

Zhang, C., Herrmann, A., Hirschi, A., Wei, J., & Zhang, J. (2015). Assessing calling in Chinese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of a measure and its relation to hop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4), 582-596.

[부록] 조사도구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본 자료는 대학생의 진로발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8~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 혜 민

지도교수 정 철 영

I.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예: 경영, IT, 사회사업 ...등)	①	②	③	④
2	나는 원하는 직업을 결정했다. (예: 엔지니어, 요리사, 목사, 교사 ...등)	①	②	③	④
3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하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진로나 앞으로 선택할 진로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성격에 꼭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6	나의 흥미 분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의 능력, 강점,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내가 받고 싶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흥미와 능력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에 적합한 직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1	누군가 나를 대신해 진로를 결정해 준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결정을 미루는 편이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종종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지금 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15	나에게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강하게 흥미를 느끼는 직업 분야가 분명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II.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소명(일의 의미)**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에 선택한 진로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미래에 선택한 진로를 통해 타인에게 항상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 그것을 소명으로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진로가 나만을 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내가 선택한 미래 진로를 통해 공동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나의 미래 진로가 공동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받을 생각에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나에게 의미 있고 명확한 미래의 진로 방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인가 하게 하는 이유를 줄 진로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진로 경로를 선택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내 삶에 진정한 목적을 부여할 진로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현재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진로를 쫓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현재 목표로 하는 직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끔은 그 외의 어떤 것도 흥미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즐겁고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 꿈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사명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진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III.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배워야 할 교과목들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향후 10년간의 노동시장의 고용흐름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결정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희생은 어려울지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업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한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처음 선택한 전공 또는 직업에 진입할 수 없다면 다른 전공 또는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문항은 여러분께서 본인이 속한 **학과(전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공학과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공학과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나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공학과의 교과목 구성내용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전공학과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다니는 전공학과는 인기 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전공학과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전공학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속한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공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속한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졸업 후에 진로에 지금의 전공학과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경남 ⑰제주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전공은?

① 인문계열 ②사회계열 ③자연계열 ④ 공학계열

#**계열을 모르실 경우,**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_____)**

*인문계열 : 언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계열 :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공학계열 :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

*자연계열 :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문리천문지리

Abstract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Hye-Min Lee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7

Major Advisor: Chul-Young Jyung, Ph.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was confirmed by establishing a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 Second,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were analyzed.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areer calling to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was verifie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a 4-year general university student in Korea. The survey was undertaken form October 11th to 20th 2016 with a target sampling population of 560 people by on-line and mailing.

The research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ajor Satisfaction scale, Career Calling sca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was collected from 482 people (return rate 86.0%) and finally 421 data were used for analysis (data validity 75.1%). Data were analyzed using Window SPSS 22.0 and AMOS 18.0 statistical program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s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and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were analyz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results of reasoning was set at 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t of the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predi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did not directly affect career decision, and career calling had a direct impact on career decis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alling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alling also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Therefore, it is shown that career calling i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Next, based on this study,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uture researchers can classify the study subjects and analyze the multi-group structure equation model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status type by decidedness, comfort, and undecided reason of subordinate variable. Thir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various career-related variables that influence career calling,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areer calling on career-related variabl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develop career calling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

keywords :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areer calling, University students

Student Number : 2013-23220